여야 ‘당리당략’에 선거구획정은 뒷전

여 “쟁점법안 처리 후”…야 “선거연령 낮추는게 먼저”

이번주 협상 재개…정의장 “설 전 타결 모든 수단 동원”

선거구 부재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협상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사정에 골몰하는 탓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총선과 같이 오는 2~3월이나 돼야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지 않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인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온 새누리당은 동수의 여야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 손질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한 이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압박으로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이후에는 더욱 협상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제도 개혁이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속 의원들의 잇단 탈당 이후 집안 단속으로 선거구 획정안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1일 가까스로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선관위에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만 하고 헤어졌다. 여야는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갖고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선관위는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그 수리도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위는 끝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김대년 획정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 노동개혁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재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새벽 귀국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다각도로 접촉해 협상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이번 주 중·후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정치권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각종 쟁점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쟁점법안은 물론 선거구 획정 협상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설 전에는 쟁점법안이나 선거구 획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의장이 강압적인 중재라도 해서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국회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태세여서 여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千 “오늘 광주에서 정치혁명을 시작합니다”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칭)국민회의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 개혁정치 부활시켜 정권교체”

천정배 국민회의 광주시당 창당대회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회의 광주시당이 1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광주시당 창당대회는 오는 31일 국민회의 중앙당 창당을 앞두고 전북도당(9일)과 서울시당(10일)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늘! 광주에서! 정치혁명을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당원과 지지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 선출과 축사,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시당은 창당선언문을 통해 “호남의 개혁정치를 부활시켜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4월 총선에 뉴DJ들을 대거 출마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으로는 광주시당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영집 미래연구원장과 김영남 광주시의원, 홍인화 전 광주시의원이 추대됐다.

국민회의는 오는 23일 전남도당, 24일 대전시당, 29일 대구시당, 29일 부산시당에 이어 31일에는 경기도당 및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는다. /최권일기자 cki@

1년8개월만에…이용섭 ‘더민주’ 복당

무소속 이용섭 전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틀과 체질을 바꿔 미래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며 복당을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야당이 분열세력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새정치연합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저를 버렸지만 저는 더민주에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광주의 실질적 민심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복당한 용기를 낸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본인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하면 결국 더민주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4·13 총선에서 애초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에 합류한 권은희 의원과의 대결이 예상된다.

이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안 의원의 측근인 윤장현 현 광주시장을 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탈당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정치인은 소신·능력·정책으로 평가받아야”

이형석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이형석 광주시 북구 을 예비후보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더민주를 탈당한 지역 정치인들을 보면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 총선에 출마하려는지, 정치철학은 무엇인지, 어떤 소신과 공약을 갖고 있는지 등 한마디로 소신과 철학은 팽개친 채 당선을 향해 민심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맛있는 음식점은 간판을 보고 찾는 것은 아니다.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주민을 만나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청년실업 해소 장기 대책 세워야”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

김명진 광주시 남구 예비후보는 17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 1999년 통계기준 개편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에 심각한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청년실업 해소책 역시 단발성이 대부분”이라면서 “정부는 향후 수요가 커질 복지·교육·관광 등 부문을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 브랜드 육성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양혜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양혜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시장별 특화고유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전통시장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밀려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경쟁력 높은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SSM과 맞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데, 남광주시장(수산물 특화)·대인시장(문화예술관광형)·산수시장(로컬푸드) 등을 특화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청년발기인 모집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이하 준비단)이 17일 대학생과 20·30대 취업준비생 등 청년발기인들을 공개모집에 나섰다.

준비단은 이날 “이제 20대가 침묵을 깨고 함께 할 때다”라면서 “더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 주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청년발기인들이) 기득권의 질서를 허물고 정치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 등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당발기인에 참여한 대학생 정재훈(24)씨는 “참여정치를 통해 우리 세대의 미래를 개척하고 싶다”면서 “국민의당이 그들만의 정치를 넘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앉아주는 정치를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북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